



2026년 1월 18일 | 주현후제2주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요한일서3:18)

기독교대한감리회 아름다운주님의교회 공동사역자 김영석 김진형 김효정 신주환 오미숙 이학재 한창천

아름다운주님의공동체

그리스도를닮기원하는사랑과나눔의 BCJC
균등과균형의교육가치를추구하는 **다림교육**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예배

당신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

2026.1.18.

BCJC 소식

환영합니다 |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 함께하시니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나누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목장이름안내 | 2026년 목장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새삼 목장(0상숙)/예그목장(부정수)/주와함께목장(신주환)/ETC 목장(오세현)/삶은목장(최경찬)입니다. 앞으로 귀한 사랑과 은혜의 목장 되시길 축원합니다.

공동체식사안내 | 오늘 공동체 식사는 주와함께목장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식탁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서류발급안내 | 2025년 연말정산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밴드를 확인해 주세요.

축복의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5~6

아름다운어린이예배

매주일오전11시 | 교회학교실

목장모임

매주일오후1시 | 교회모임실

매일묵상

매일오전5시



다림교육

매일 | 다림교육센터

당신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십니다.

사도행传 9:3~7 시울이 길을 가다가, 다 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시울아, 시울아, 네가 왜 나를 펑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펑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안으로 들어가거나.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목장나눔

나눔1. 심리학의 ‘애착이론’과 ‘안전 기지’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어린아이가 놀다가 엄마를 확인하듯,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마음이 불안할 때 찾게 되는 나만의 ‘피난처’나 ‘뒷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혹은 누구를) 찾게 되시나요?

(청소년용 나눔 : 설교에서 사람은 누구나 무서울 때 기댈 수 있는 ‘안전 기지’를 찾는다고 했어.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처럼 말이야. Q. 만약에 너희가 엄청 무서운 귀신의 집에 들어가거나, 학교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듣든 하겠다!” 싶은 사람은 누구야?)

사람들을 ‘빡’으로 두고 있어서 어깨가 으쓱했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성적, 친구 관계가 자신의 ‘빡’이라고 생각하기도 해.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너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야? (성적? 외모? 인싸력?) 반대로 어떤 때 제일 기가 죽고 작아지는 것 같아?)

주파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용 나눔 : 설교에서 메트로놈 영상 얘기했잖아. 처음엔 박자가 다르지만 같은 판 위에 있으면 점점 똑같은 박자로 움직이게 되는 거. 우리도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마음과 맞아진다. 요즘 너의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땀데 가있거나, 기도는 하는데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하진 않아? 예수님과 주파수를 맞추려면 뭘 해야 할까?)

나눔3. 물리학에 동조현상이라는 것 있습니다. 같은 판 위에 파장과 진동은 서로 동시성을 띠다는 거죠. 심리학의 대가 칼융도 이와 같은 동시성 이론을 제시한 바 있죠. 저는 이것을 성령의 임재로 해석합니다. 성령이라는 판 위에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동기화 되는 것 이 신앙이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을 나누세요.

(청소년용 나눔 : 시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펑박한다”고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와 몸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 누가 내 발가락을 밟으면 내 입에서 “아아”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이야. 학교나 교회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 본 친구를 본 적 있어? 그때 너는 어떻게 했어? 같이 아파했어, 아니면 “그건 네 문제잖아”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이 그 친구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신다는 게 너한테는 어떻게 느껴져?)

나눔5. 설교는 “파이프가 물을 통과시키면 절대 마르지 않는다”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라 내 통로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운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 내 통로를 마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풍성한 통로가 되기 위해 원수에게도 나눠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청소년용 나눔 : 설교에서 파이프 얘기했지? 파이프가 물을 통과시키면 파이프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우리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 손해 보더라도 용서하거나 정직하게 행동한 적 있어? 그때 어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나눔2. 사실 시울은 예수님을 직접 펑박한 적이 없죠. 대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펑박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울에게 ‘네가 펑박하는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용 나눔 : 성경에 나온 시울 아저씨는 요즘 말로 하면 ‘스펙’도 짤고, 힘 있는

나눔4.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같은 방향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한다고요. 공부도 그래요. 이해를 다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되어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것은 바로 이것이 주파수가 맞아 가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주님과

나눔6.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용 나눔 :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배운 점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래?)